

## 새로운 希望과 挑戰의 새해를



會長 朴永文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尊敬하는 大韓電氣學會 會員 여러분!

國內外的으로 多事多難하였던 80年代를 마무리하고 우리 學會도 새로운 希望과 挑戰의 90年代 새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學會任職員을 代表하여 學會 會員 여러분에게 지난해의 厚意에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1990年 元旦에 즈음하여 우선 紙上을 통해서 新年賀禮를 올립니다.

不肖 저는 國內最高最大의 大韓電氣學會의 會長職을 大過없이 遂行할 一念으로 學會任職員과 合心하여 지난 1年間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그 成果는 未洽하다고 自責하고 있습니다. 저는 會長취임시 우리 學會의 當面課題의 優先順位를 學會 學術水準의 國際競爭力 確保, 會員間의 人和圖謀, 學會의 產業界에의 寄與度 向上인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 焦點을 맞추어 學會活動을 推進하여 왔습니다.

지난 1年間을 회고컨대, 學會活動의 國際化的 觀點에서 본다면, IFAC심포지움, 韓日電力電子심포지움, 韓美電力系統 엑스퍼트시스템 세미나 등 세가지 國際會議의 國內開催로 300名 以上の 外國學者와 技術者가 서울을 訪問하여 400편 以上の 海外論文이 發表되었고, IFAC論文은 지금 全世界에 配布되고 있으며 우리 學會와 學術交流를 희망하는 外國學者가 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當面課題의 첫째 目標는 그런대로 達成된 것으로 自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學會誌의 內容도 編輯委員會의 헌신적인 努力으로 長足の 發展을 가져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學會活動이 아직도 대다수 會員의 參與機會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產業界에 대한 寄與度面에서도 自省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1990年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跳躍과 挑戰의 21世紀를 준비해야할 우리나라의 現與件을 認識할 때, 大韓電氣學會가 우리나라의 工業先進化와 產業構造의 再編成 내지 改革에는 外面한 채 孤高하게 學問的인 유희에만 自足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今年度에는 “大韓電氣學會가 어떤 活動을 遂行하여야 보다 效果的으로 產業界에 寄與할 수 있는가?”라는 命題에 對하여 學會任職員은 지혜를 총동원하여 심사숙고하고 이에 따른 活動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學會와 關聯이 있는 產業界의 현안문제에 대하여도 建設的이고, 未來指向的인 意見을 개진할 것이며, 產業界에서 要請한다면, 可能한 助力과 서비스를 提供할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學會의 보다 次元높은 새로운 學會像을 定立하기 위해서는 여러 會員의 共識가 絕對的인 要件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會員의 加一層의 協助와 忠告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여러 會員의 宅內에 幸福과 平和가 充滿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年 元旦